

제주도 어촌관광 동기분석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희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A Study on the Strategics of Tourism Revitalization based on Motive of Tourist to Seaside Villages in Jeju Island

Lee, Jin-Hee

Dept. of Tourism Develop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oday, seaside village has been met with much difficulty from aggravation of fishing conditions including decrease of fishery resources, marine products market opening, reduc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 Thus, seaside village tourism can become an useful alternative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deals with on the tourism activities based on motive of tourist to Seaside Villages in Jeju Island. And it will be find out though the cross analysis of tourism motivation factors and tourism activities factors. With 298 effective responses gathered from an on-site surve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techniques of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canonical analysis. The tourism motivation and activities were conformed by Chi-Square Analysis and ANOVA analysis. For the growth of seaside village, many tourist must visit four seasons and tourism facilities and programs will be develop as seaside village experience activities, marine leisure activities, and circumference inquiry activities.

Key words : seaside village, revitalize, tourism motivation, tourism activities

1. 서론

제주지역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감귤과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국 지역경제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WTO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률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7년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어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본격화되었다.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제주도 농어촌의 기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이진희, 2008).

1990년 제주도의 어업종사자수는 10,83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8,403명으로 매년 1.1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2010). 또한 제주도의 어촌은 어장의 축소, 자원고갈, 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촌관광은 향후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진희, 2005).

제주도 관광객의 경우 대규모의 단체관광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단위의 체류형 체험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어촌관광은 새로운 관광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승래 등, 2005; Moreno와 Becken, 2009).

해안에서 휴식을 즐기며,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 활동이 확산되면서 갯벌체험, 어촌문화체험 등 어촌지역에서 관광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보고 즐기며, 수산물을 먹기 위하여 어촌을 찾는 새로운 관광패턴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었으며, 어촌이 낙후되고, 어업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진흥차원에서 대체산업의 필요성 및 대안제시(박구원 등, 2002; 이진희와 홍원식, 2010; 홍원식,

Corresponding author: Lee, Jin hee
Tel: 064-754-3172
E-mail: jinhei@jeju.ac.kr

2010; 장양례 등, 2011)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객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관광에 참여하는데, 동기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행동에 참여하거나 참가하려는 선천적인 사회·심리적 힘으로(Iso-Ahola, 1982), 관광행동의 이해와 목적지 선택과정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촌의 관광활동참여를 유발시키는 관광동기를 이해하고, 관광동기가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어촌관광의 개념

최근 들어 바다와 해안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촌에 대한 인식도 증대하게 되었으며, 농촌관광과는 다른 관점에서 어촌관광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진희와 홍원식, 2010).

어촌이란 바다, 강, 호수에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가공·제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이다(한상복, 1991).

어촌관광은 어촌의 생태, 경관, 체험 등과 같이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김성귀, 2001; 최병길 등, 2007), 육지나 해양,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부존자원을 활용한 모든 활동(임영규 등, 2004; 고종화, 2002)이라 정의하였다. 김성귀 등(2001)은 어촌관광을 어가(漁家)에서 겸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어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관광자원을 도시민과 어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광범(2005)은 어촌관광을 연안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어촌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어촌관광은 어업과 관광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촌의 관광관련 활동의 비중은 높지가 않으며, 어촌 주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관광관련 활동은 기존의 생산활동과 병행한다(송경언, 2002).

이에 반해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주민이 농촌지역에서 자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제공하는 관광활동(이경희, 2004)으로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어메니티를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윤유식 등, 2008; 전재균, 2007)이며, 농산촌 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여 도시민과 교류하는 관광(김남조, 2004)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정의를 비교해 볼 때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제공하는 관광활동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 등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관광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해양과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물을 매개로 관광객과 교류 하면서 환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어촌관광의 동기

관광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핵심적 요소의 관찰이 가능하다. 1960년대에는 휴식적 측면의 강조에서 1970년대에는 즐거움이나 변화의 추구, 취미활동의 추구 등과 같이 활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Krippendorf, 1987). 1990년대 Uysal과 Jurowski(1994)는 관광동기를 추진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상호관련성으로 실험하였으며, Oh et al.(1995), Baloglu와 Uysal(1996) 등은 다변량분석, 정준상관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두 요인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어촌관광동기와 관련이 있는 목적형 관광의 동기에 대한 연구로는 이벤트 및 축제관광(Lee 등 2004; Scott, 1996; Uysal 등, 1993; 이충기 등, 2000; 이장주, 2003; 김영석, 2010), 생태관광(Kerstetter 등, 2004; 강미희 등, 2003; 김선영 등, 2007; 오민재 등, 2008), 문화관광(Josiam 등, 2004; McIntosh, 200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활동에 참여할 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촌관광의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로는 신동주 등(2008)은 동해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어촌관광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해양레포츠, 새로운 경험, 자연감상 및 일상탈출, 어촌문화체험, 동료와 유대강화, 수산물 구입 및 채취, 가족화합 등으로 분류하였고, 김은정(2009)은 삼척시 장호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어촌체험, 신체 및 자아실현, 휴식, 교육 및 문화 지위 및 명예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윤정민(2011)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성취, 자아실현, 모험, 명상, 소속감, 자연친화, 휴식, 탈일상성, 관계강화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차오린(2011)은 중국 웨이하이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해양활동 및 신기성, 사교성, 가족 친화성, 어촌문화체험, 일상탈출, 자연감상, 수산물구입 및 채취 등으로 분류하였다.

3. 어촌관광의 활동유형

관광유형에 관한 연구는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연구와 관광목적에 따른 연구로 구분되어 진다.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연구에 있어서 Smith(1989)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체관광에서부터 개인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을 다루고 있다.

어촌관광의 관광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이재천(1994)은 관광활동의 유형으로는 수산물외의 시식과 구입활동, 바다낚시, 해수욕, 생태체험, 해양스포츠, 바다경관감상, 역사문화체험으로 분류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은 어촌관광자의 여행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해양스포츠와 레저, 자연경관감상, 해산물요리, 기분전환 및 드라이브, 조용한 휴식, 수산물채취, 문화유적탐방으로 분류하였고, 김성귀 등(2001)은 경관감상과 해변휴양, 수산물맛보기와 쇼핑, 해수욕, 축제, 역사와 문화탐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박구원 등(2002)은 서해안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산물구입, 휴식, 바다경관감상, 해양레저, 어촌체험, 문화유적탐방으로 분류하였으며, 신동주 등(2008)은 동해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해양레포츠, 새로운 경험, 자연감상 및 일상탈출, 어촌문화체험, 동료와 유대강화 수산물구입 및 채취, 가족화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윤정민(2011)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어업체험, 생태체험, 수산물음식체험, 해양레크리에이션, 전통문화, 농업체험, 사회적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였다.

어촌관광의 관광동기와 관광활동의 상관관련성에 관한 연구로서 윤정민(2011)은 어촌관광동기와 어촌관광활동 및 시설이용요인간의 관계를 경로분석한 결과 명상과 사회적 인프라, 자연친화과 수상활동, 관계강화와 수상활동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체험선호요인과 어촌관광활동 및 시설이용요인간의 관계를 경로분석한 결과 어업체험과 사회적 인프라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Table 1 설문지 구성

구성지표	구성내용
어촌관광 동기	바다낚시, 해수욕, 해양스포츠활동, 일상생활 탈출, 휴식, 스트레스 해소, 생활의 활력, 기분전환, 경관감상, 새로운 추구, 색다른 문화경험, 지적 호기심 충족, 모험 및 스릴 추구, 오락추구, 자아발전, 어촌향수추구, 이벤트 참여, 어법체험, 수산물 구입, 수산물시식, 어촌체험, 주변 관광지구경, 가족간 결속력 증진, 동료와 친목도모, 가족간 문화생활, 자녀교육, 새로운 만남
어촌관광 활동	해수욕, 스낵스쿠버/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낚시, 보트타기, 해산물 채취, 어촌 경관감상, 해상유람, 박물관/민속촌 관람, 수산물 구입/시식, 산책 및 걷기, 유적지/사적지 탐방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III. 연구방법

1. 설문지의 구성

어촌관광의 관광동기에 관한 설문문항의 작성은 신동주 등(2008), 김은정(2009), 윤정민(2011), 차오린(2011)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Table 1과 같이 조사항목을 추출하였다. 어촌관광의 관광활동에 관한 설문문항의 작성은 이재천(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 김성귀 등(2001), 박구원 등(2002), 신동주 등(2008), 윤정민(2011)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조사항목을 추출하였다.

어촌 관광동기 및 활동에 관한 측정항목의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실증적 연구는 제주도 어촌관광객의 관광동기와 관광활동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어촌을 이용한 관광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선정은 조사대상지역을 방문하여 어촌관광활동에 참여한 제주도 내·외의 관광객으로 한정하였고, 지역주민이나 어촌관광 종사자 등은 설문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성산읍 지역과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안덕면 지역 2곳을 선정하였다. 성산읍의 조사지역은 주변에 연근해어업의 중심지인 성산항, 우도팔경, 성산일출봉, 십지코지 등의 관광자원과 유람선과 잠수함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오조리 내수면은 조개, 보말 등의 어패류가 많아 어촌체험활동의 적지이고, 신양해수욕장은 수심, 수온, 모래사장 등이 해수욕하기 적합하고, 지형이나 바람

등의 여건이 좋아 윈드서핑의 적지이다. 또한 섬지코지에는 해양수족관, 해양문화관, 해양박물관 등이 어울어진 해양과학관이 공사중에 있다. 안덕면의 조사지역은 주변에 산방산, 용머리해안, 하멜기념관, 형제섬 등의 관광자원과 사계리 해안도로로 유명하다. 사계리는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바다낚시 및 배낚시로도 유명하다. 화순해수욕장 및 사계해수욕장이 위치하며, 체험다이빙, 마라도 유람선 및 잠수함관광 등을 즐길 수 있다.

조사 시기는 어촌관광의 참여도가 높은 시기에 실시해야 하므로 2009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6일간 여름 휴가철에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성산읍 어촌지역 150부, 안덕면 어촌지역 150부를 배포하여 총 298부의 유효설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어촌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에게 설문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 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AS 9.2 window ver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제주도의 관광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성별로는 남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20대순으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사무직, 학생, 자영업자 순으로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300만원, 100-200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경기(인천포함), 서울,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포함) 순으로 많았다.

어촌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동기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직각회전방법중의 하나인 Varimax로 지정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이상인 경우와 공통값(Communality)이 0.4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어촌관광동기변수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적재량과 공통값이 모두 0.4이상이므로 모든 변수를 채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Eigenvalue가 모두 1이상이고, 요인분산 설명력은 60.8%이다.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신뢰계수(Cronbach-Alpha)는 0.88, 0.85, 0.81, 0.81, 0.55로

Table 2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93	64.8
	여	105	35.2
연령	20대 이하	93	31.2
	30대	121	40.6
	40대	59	19.8
	50대 이상	25	8.4
직업	학생	47	15.8
	자영업	44	14.8
	관리/사무직	71	23.8
	기술/생산직	41	13.8
	판매직/서비스직	40	13.4
	기타(주부, 공무원 등)	55	18.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3	21.1
	100-200만원	89	29.9
	200-300만원	95	31.9
	300만원 이상	51	17.1
거주지	제주도	22	7.4
	서울	68	22.8
	경기(인천포함)	78	26.2
	충청도(대전포함)	32	10.7
	전라도(광주포함)	33	11.1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포함)	65	21.8

비교적 높게 나왔다.

Kaiser의 MSA(measurement sample adequacy)값을 이용하여 관광동기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김기영 등, 1991) MSA값은 일반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와의 차이에 관한 상대적인 비례값을 계산한 것으로 전체 MSA값이 0.87로 높게 나타났다.

Factor I - Factor IV의 각각의 요인에 묶인 항목을 분석한 결과 요인 I은 ‘휴식재충전’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II는 ‘새로움 경험’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III은 ‘가족 화합’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IV는 ‘어촌체험’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V는 ‘해양레저’로 명명하였다.

어촌관광객의 관광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활동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직각회전방법중의 하나인 Varimax로 지정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이상인 경우와 공통값

(Communality)이 0.4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어촌관광활동변수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적재량과 공통값이 모두 0.4이상인 변수를 채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Eigenvalue가 모두 1이상이고, 요인분산 설명력은 60.6%이다.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신뢰계수(Cronbach-Alpha)는 0.78, 0.75, 0.69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Kaiser의 MSA(measurement sample adequacy)값을 이용하여 관광동기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김기영 등, 1991) MSA값은 일반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와의 차이에 관한 상대적인 비례값을 계산한 것으로 전체 MSA값이 0.81로 높게 나타났다.

Factor I - Factor IV의 각각의 요인에 묶인 항목을 분석한 결과 요인 I은 ‘어촌체험활동’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II는 ‘해양레저활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III은 ‘주변탐방활동’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관광동기의 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

요인별	아이젠값	신뢰계수	관광동기항목	요인적재량	공통값
Factor I (휴식·재충전)	7.11	0.88	스트레스 해소	0.87	0.77
			생활의 활력	0.84	0.72
			휴식	0.82	0.70
			기분전환	0.81	0.67
			일상생활 탈출	0.78	0.64
			경관감상	0.73	0.61
			해수욕	0.45	0.46
Factor II (새로움 경험)	3.88	0.85	주변 관광지구경	0.42	0.50
			색다른 문화경험	0.82	0.70
			새로움 추구	0.81	0.67
			지적 호기심 충족	0.78	0.67
			모험 및 스릴 추구	0.66	0.54
			자아발견	0.65	0.49
Factor III (가족화합)	2.38	0.81	오락추구	0.56	0.49
			가족간 문화생활	0.86	0.78
			자녀교육	0.82	0.72
			가족간 결속력 증진	0.78	0.66
Factor IV (어촌체험)	1.71	0.81	새로운 만남	0.51	0.50
			동료와 친목도모	0.50	0.42
			수산물시식	0.81	0.74
			수산물 구입	0.71	0.70
			어촌향수추구	0.70	0.62
Factor V (해양레저)	1.35	0.55	어촌체험	0.56	0.52
			어법체험	0.51	0.61
			바다낚시	0.73	0.56
			해양스포츠활동	0.68	0.55
			이벤트 참여	0.43	0.41

요인분산설명력 : 60.8%, 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Overall MSA) : 0.869

어촌관광 동기요인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보통임을 알 수 있다. 정준함수3은 아이젠값이 0.082로 낮으며, 비율도 0.106으로 낮으며, 정준상관관계도 0.276으로 나타나 어촌관광 동기요인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준함수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6과 같이 Wilk's Lamda, Pillai's Trace, Hotelling-Lawley Trace, Roy's Greatest Root 등의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정준함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어촌관광 동기요인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7과 같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함수1은 어촌관광동기요인군중에서 어촌체험, 새로움 경험, 가족화합, 휴식·재충전 순으로 어촌관광 활동요인 중에서 주변탐방활동,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 활동 순으로 영향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함수2는 어촌관광동기요인군중에서 해양레저, 휴식·재충전, 새로움 경험, 어촌체험 순으로 어촌관광 활동요인 중에서 어촌체험활동, 주변탐방활동 순으로 영향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함수3은 어촌관광동기요인군중에

서 가족화합, 휴식·재충전, 새로움 경험 순으로 어촌관광 활동요인 중에서 해양레저활동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동기요인에 대한 최적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는데, 군집분석은 PROC FASTCLUS를 이용하였다(김충련, 1997). FASTCLUS 프로시저는 많은 양의 관찰치를 갖는 SAS 데이터셋에 대한 비연결군집(Disjoint Cluster)을 찾아내는데, 자료에 대한 두 세번의 처리를 통하여 해석이 쉬운 군집을 찾아내는 이점이 있다.

군집분석결과 Table 8과 같이 군집 I 은 어촌체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않으며, 가족화합에 관심이 없으므로 '일반관광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II는 어촌체험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므로 '새로운 어촌체험활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III은 해양레저활동을 추구하므로 '해양레저활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IV는 휴식·재충전활동을 추구하므로 '휴식·재충전활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어촌관광동기유형별 군집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에 분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P<0.05)을 실시한 결과 어

Table 7 어촌관광 동기요인과 어촌관광 활동요인에 관한 정준상관분석

요인명(Factors)	표준정준상관계수(Standardized Correlation Coefficients)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정준함수1	정준함수2	정준함수3	정준함수1	정준함수2	정준함수3
-어촌관광동기요인-						
Factor I(휴식·재충전)	0.131	0.294	0.550*	0.391*	0.314*	0.454*
Factor II(새로움 경험)	0.475*	-0.716*	0.561*	0.779*	-0.310*	0.420*
Factor III(가족화합)	0.295	-0.027	-0.775*	0.643*	0.186	-0.514*
Factor IV(어촌체험)	0.518*	0.287	-0.290	0.829*	0.309*	-0.140
Factor V(해양레저)	-0.146	0.802*	0.314*	0.278	0.751*	0.242
-어촌관광활동요인-						
Factor I(어촌체험활동)	0.469*	0.834*	-0.675*	0.788*	0.573*	-0.227
Factor II(해양레저활동)	0.217	0.137	1.096*	0.581*	0.289	0.761*
Factor III(주변탐방활동)	0.607*	-0.884*	-0.127	0.832*	-0.546*	-0.096

* : 정준부하의 값이 0.3이상인 경우

Table 8 어촌관광동기의 군집별 변수에 대한 군집평균(Cluster Means)

구분	Factor1 (휴식·재충전)	Factor2 (새로움 경험)	Factor3 (가족화합)	Factor4 (어촌체험)	Factor5 (해양레저)
군집1	-0.291	-0.593	-0.516	-0.611	0.368
군집2	-1.163	0.805	-0.451	1.428	-0.312
군집3	-0.231	-0.134	0.316	-0.048	1.518
군집4	0.753	0.318	0.458	0.085	-0.282

Table 9 어촌관광 동기의 군집별 어촌관광 활동요인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관광활동요인	관광동기군집	일반관광활동군 (n=98)	새로운 어촌체험활동군 (n=37)	해양레저활동군 (n=52)	휴식·재충전 활동군 (n=111)	F값 P값
		어촌체험활동	평균 표준편차	-0.477b 0.836	0.309a 1.369	0.225a 1.151
해양레저활동	평균 표준편차	-0.334c 0.911	-0.079bc 1.237	0.355a 1.151	0.154ab 0.818	7.21 <0.001***
주변탐방활동	평균 표준편차	-0.356b 0.842	0.260a 1.071	-0.226b 1.051	0.334a 0.957	10.98 <0.001***

주1) * : p<0.1, ** : p<0.05, *** : p<0.01

주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c,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주3)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하여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9>. 일반관광활동군은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새로운 어촌체험활동군은 어촌체험활동과 주변탐방활동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해양레저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해양레저활동군은 해양레저활동과 어촌체험활동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휴식·재충전활동군은 주변탐방활동,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어촌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4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야 한다.

· 어촌체험활동 부문: 설문조사지인 성산지역은 오조리 내수면의 조개잡이, 성산일출봉과 섬지코지 일대의 낚시포인트가 유명하며, 안덕지역은 사계리어촌체험마을, 형제섬 일대의 낚시포인트가 유명하다. 이들 지역에는 해녀들의 탈의장, 교육공간, 정보교류의 장소인 불턱을 만들고, 제주선인들이 밀물과 설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잡이하던 원담을 만들며, 제주도의 원시적인 고깃배인 테우를 만들며, 바다속에 직접 들어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유어장을 조성하도록 한다. 불턱, 원담, 테우, 유어장 등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잡은 고기나 해산물은 요리해 먹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해양레저활동 부문: 설문조사지인 성산지역은 신양의 해수욕장 및 윈드서핑, 성산항의 유람선 및 잠수함, 안덕지역은 사계해수욕장 및 화순해수욕장, 사계리의 잠수함 및 마라도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다. 신양리 일대는

바람이 많으므로 윈드서핑, 페리세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양해수욕장은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매점 등과 같은 해수욕장의 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한다. 화순해수욕장 주변에는 풍부한 용천수가 1년 내내 흐르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들고, 대평리에서 화순일대에는 해양환경을 가꾸면서 바닷속을 탐사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탐방활동 부문: 설문조사지인 성산지역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성산일출봉, 올인의 촬영지인 섬지코지, 우도팔경이 아름다운 우도가 있으며, 안덕지역은 하멜이 상륙한 용머리해안, 산방굴사가 있는 산방산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섬지코지, 용머리해안, 산방산 등은 생태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방굴사나 하멜기념관 등은 문화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들은 훌륭한 관광자원이지만 어촌체험활동과 해양레저활동이 결합되었을 때 지역전체가 명소로 발전하여 어촌주민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는 일반관광활동군을 위해서는 산방산, 소수봉의 오름등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조리 내수면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시설을 개발하며, 어촌과 농촌을 결합한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한다.

V. 결 론

어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촌관광객의 관광

동기에 따라 어떤 관광활동을 행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어촌관광의 상품개발이나 관리운영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따른 관광활동유형을 분석한 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촌관광 동기요인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함수 1의 경우 어촌체험이나 새로움 경험의 어촌관광동기요인군과 주변탐방활동, 어촌체험활동과 영향관계가 아주 높았으며, 정준함수2의 경우 해양레저의 어촌관광동기요인군과 어촌체험활동, 주변탐방활동과 영향관계가 높았으며, 정준함수3의 경우 가족화합의 어촌관광동기요인군과 해양레저활동과 영향관계가 높았다. 여기서 정준함수1의 경우와 정준함수3의 경우 본인이 어촌을 방문하기 전에 의도한 어촌관광활동을 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정준함수2의 경우 해양레저의 동기요인으로 어촌을 방문하였다가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타 관광활동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들 방문객을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해양레저활동의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촌관광동기유형별 군집과 어촌관광 활동요인간에 분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P < 0.05$)을 실시한 결과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하여 군집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관광활동군은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새로운 어촌체험활동군은 어촌체험활동과 주변탐방활동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해양레저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해양레저활동군은 해양레저활동과 어촌체험활동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휴식·재충전활동군은 주변탐방활동,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어촌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4개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야 하고, 이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어촌체험활동 부문에서는 불턱, 원담, 테우, 유어장 등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잡은 해산물은 요리해 먹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해양레저활동 부문에서는 신양리 일대에 윈드서핑, 페러세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양해수욕장은 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한다. 화순해수욕장은 용천수를 활용하여 풀장을 만들고, 대평리에서 화순일대에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탐방활동 부문에서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용머리해안, 산방산 등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방굴사나 하멜기념관 등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어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에 관심이 없는 일반관광활동군을 위해

서는 오름등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류생태탐방시설을 개발하며, 어촌과 농촌을 결합한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청정한 바다, 다양한 어종, 싱싱한 해조류 등과 같은 어촌관광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의 특색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이미지에 맞는 어촌관광자원개발과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바다와 관련된 이벤트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제주도 어촌관광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어촌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따른 관광활성화이지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일천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악, 다른 관광어촌관광지역과의 비교, 어촌관광객의 행태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미희, 김남조, 최승담, 2003, 대중관광객과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규명: 여행동기 및 태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17(2), 157-175.
2. 고종화, 200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기영, 전명식, 1991, SAS인자분석, 자유아카데미, 31-39.
4. 김남조, 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농촌현상 구성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263-281.
5. 김선영, 장병주, 이준, 2007, 생태관광동기, 여가만족, 삶의 질의 영향관계연구, 관광연구, 22(2), 59-76.
6. 김성귀, 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김성귀, 홍장원, 박상우, 2001, 어촌관광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20.
8. 김영석, 2010, 축제동기의 추구요인과 유인요인의 차이 연구, 이벤트컨벤션연구, 6(1), 23-44.
9. 김은정, 2009, 어촌관광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충련, 1997, SAS라는 통계상자, 서울 : 테이타플러스, 479-485.

11. 박광범, 2005,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산경제정책연구원, 7.
12. 박구원, 이수옥, 2002,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3), 167-190.
13.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5.
14. 신동주, 손재영, 2008, 어촌관광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255-273.
15. 여운승, 2006, 다변량행동조사, 민영사.
16. 오민재, 이소연, 2008, 여행목적과 관광객 만족에 의한 생태관광객 동기 세분화, 관광연구저널, 22(1), 277-290.
17. 윤유식 · 오홍철, 2008, 농촌관광마을 방문만족도 세분시장별 농촌관광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3), 109-124.
18. 윤정민, 2011, 어촌관광동기와 선호유형이 시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경희, 2004, 농촌관광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문화관광연구, 6(1), 333-343.
20. 이승래, 조재환, 백진이, 2005,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분석, 수산경영론집, 36(3), 25-35.
21. 이장주, 2003,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이진희, 2005,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제주군 어촌의 발전방향, 『경제개발연구』7(1), 제주경제개발연구소.
23. 이진희, 2008,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23, 171-210.
24. 이진희, 홍원식, 2010,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6, 389-432.
25. 이재천, 1994, 관광어촌, 서울:백산출판사.
26. 이충기, 이태희, 2000,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축제참가동기 분석, 관광학연구, 23(2), 81-97.
27. 임영규, 이수범, 이승곤, 2004, 국내 어촌관광 실태에 따른 개발방향의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18(2), 309-322.
28. 장양례, 윤유식, 구본기, 2011, 어촌관광객의 선호속성, 어촌체험관광 만족도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 지도, 추천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25(6), 341-363.
29. 전재균, 2007,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팜스테이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광·레저연구, 19(3), 323-341.
30. 차석빈, 김홍범, 김우곤, 윤지환, 오홍철, 2001, 다변량분석의 이론과 실제-관광학사례를 중심으로, 학현사.
31. 차오린, 2011, 방문동기가 어촌관광지 이미지와 만족도 및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최병길, 박성수, 2007, 어촌체험관광마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25(3), 27-52.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34. 한상복, 199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5.
35. 홍원식, 2010, 제주지역 어촌방문객의 관광동기에 따른 관광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Baloglu, S., & Uysal, M., 1996, Market segment of push and pull motivation : A canonical correl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Hospitality Management, 8(3), 32-38.
37. Iso-Ahola, S. E., 1982,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 256-262.
38. Josiam, B. M., Mattson, M., & Sullivan, P., 2004, The Historaunt: Heritage tourism at Mickey's Dining Car, Tourism Management, 25, 453-461.
39. Kerstetter, D., Hou, J. S., & Lin, C. H., 2004, Profiling Taiwanese ecotourists using a behavioral approach, Tourism Management, 25, 491-498.
40. Krippendorf, J., 1987, The Holiday Markets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Leisure and Travel, Heinsmann Professional Publishing, Redwood Burn Ltd. Towerbridge, Wildshire, England.
41. Lee, C. K., Lee, Y. K., & Wicks, B., 2004, Segmentation of festival motivation by nationality and satisfaction, Tourism Management, 25(1), 61-70.
42. McIntosh, A., 2002, Tourist Appreciation of Maori culture in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25(1), 1-15.
43. Moreno, A., & Becken, S., 2009,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for coastal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7(4), 473-488.
44. Oh H. C., Uysal, M., & Weaver, P. A., 1995, Product bundles and market segments based on travel motivations : A canonical correl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Hospitality Management, 14(2), 123-137.

45. Scott, D., 1996, A comparison of visitor' motivation to attend three urban festival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3(3), 121-128.
46. Smith, V. L., 1989, *Hosts and Guests : The Anthropology of Tourism*, 2d ed,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47. Uysal, M., Gahan, L., & Martin, B., 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A case stud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5-10.
48. Uysal M., & Jurowski, C., 1994 Testing the push and pull fact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4), 844-846.

접 수 일: (2011년 7월 25일)

수 정 일: (1차: 2011년 9월 1일, 2차: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6일)

■ 3인 익명 심사필